



Coronavirus Cases:

155,829

Deaths:

5,814

Recovered:

74,438

Endemic/Pandemic

Endemic

- 일정 지역에서만 발병하고 그 지역에서만 퍼져나간다:
예로 대구 또는 경상북도, DC or VA
-
- WHO에서 말할 때는 한 지역인 한국 또는 일본이라는 지역을 말한다

Pandemic

-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다.
- WHO에서 말하는 Pandemic는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 지방 즉 전 세계적인 때 Pandemic라 한다

Epidemiology(역학)

- 어떤 질병이
- 1, 왜 발병하나?
- 2, 발병 회수가 어떤가?
- 3, 어떻게 분포되어있나?
- 4, 어떤 경로로 전파되나?
- 5, 어떤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 되나?
- 6, 어떻게 총체적으로 질병을 관리해야 하나?

감기증상과의 차이

감기(Common Cold)

Sneezing, Congestion, Cough,
Lower grade fever, Runny
nose , Itch nose or Eye or
Both, Sore throat,

콧물, 재채기, 눈 또는 코가
가려움, 미열, 목구멍이
아픔, 전신 증상이 가볍다.

일주일 이면 면역이 되어
회복된다

코로나균증상

- 기침을 하고 고열이 나고 숨이 차며, 특히 마른 기침과 함께 호흡장애가 특징
- 축 처지며 기진맥진한다
- 대다수는 가볍게 끝난다
- 기본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시

-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증상없이 이겨내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된 것을 모른다
- 2, 일정 수의 사람들은 몸이 약간 불편 하고 피곤을 느끼지만 시간이가면서 면역이 생겨 이겨낸다
- 3, 노인들과 면역이 약한 사람들 즉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을 갖고있는 사람들 예: 당뇨, 천식, 암, 면역성 질병을 갖은 사람들은 심하게 앓거나 죽기까지 한다

치사률

독감

- 약 0.1%이하로 1000명이 걸리면 한명이 사망한다.
- 미국에서 매년 10,000.-20,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한다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 2-7%로 1000명이 걸리면 약 1명내지 7명까지 사망한다
- 40세 미만인 경우 치사율이 0.2%
- 80세 이상인 경우는 치사율이 20%까지

어떻게 전파하고있나?

- 1, 처음 시작은 동물에서 옮겨온 걸로 이해하지만, 일반인이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에서 오는 전파가 가장 많다, 침이나 콧물이나 전염의 직접적인 원이다, 대화시 침은 1미터까지 가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2미터까지 침이 퍼진다.
- 2, 감염자의 체액이 묻어있는 기기들을 만진다음 자기의 입이나 코를 만지면서 점막을 통해 들어온다.
- 3, 감염으로 죽은 사람을 통해 전파된 경우는 아직 보고가 없다.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진단)

- 1,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있는 지역에 다녀온 사람(이태리, 중국, 한국)
- 2,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
- 3,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며 호흡이 곤란 한 경우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

- 각 주, 시, 카운티의 보건 Center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다.
- 문제는 각 질변관리소나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각자의 개별 의사한테(Call your doctor) 전화를 하여 지침을 따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의사한테는 아직도 검사 재료가 지급 안되고 있으며 개인병원이 검역대상이 될수있기에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 대부분의 응급실에도 아직 검사 Sets가 지급 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 미국에는 아직 선별소가 따로있지 않지만 현재로는 응급실로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진단

- 1, 혈액으로 진단: 초기에 했으며 시간과 경비가 꽤 든다
- 2, 입안의 세포나 코안의 세포로 진단: 시간이 적게 걸리며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한국에서 하는 Drive through도 편리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재발/재 감염

-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재발도 되고 재 감염도 되는 걸로 알려졌다.
- 질병을 앓고 회복된 다음에 생기는 면역이 얼마나 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시간이가면서 중국이나 한국의 역학조사로 곧 밝혀질 것이다

치료

- 1, 현재로써 항 바이러스 약이 없기 때문에 병의 증상을 치료하다보면 본인의 면역력이 생기면서 이겨내게 된다(탈수 예방과 해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 면역을 올려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히 쉬고 탈수를 예방하고 잘 먹는것이 가장 좋은 면역 상승 수단이다.
- 2, 호흡곤란 증상이 나면 폐렴이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음압기 치료: 호흡을 기계가 해줌)

자가 격리

- 감염의 의심이 되는 사람이나 확진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데 현재로는 2주간의 격리를 추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3주 또는 4주만에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예방

- 1, 항 바이러스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Social Distance(거리두기): 대화시에는 약 2 Meter의 거리를 두고 대화한다.
- 3, 문고리를 만질 때는 종이나 수건을 사용하며 때론 몸으로 밀어 연다
- 4, 밀집 지역은 피한다
- 5, 악수는 피하고 Elbow touch로 반가움을 표시한다.

예방

- 6, Elevator을 타면 벽을 향해 서있다
- 7, 특정 지역 즉 상점같은 곳에서 사람과 마주할 때에는 Mask를 쓰면 안전도가 높아진다.
- 8,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피한다.
- 9, 손을 자주 씻는다, 상품으로 나온 Sanitizer인 살균세척액들은 성능이 다 비슷하다, 비누로 씻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며 흐르는물 즉 수도물에 씻어도 같은 효과가 있다.

어떤 Mask를 써야 하나?

- 대부분의 상업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된다
- 급하면 집에서 면으로 몇 겹을 대어 만들어써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가 더 좋은가?
- 안 그렇다.
- Virus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Virus를 걸러낼만큼 촘촘한 마스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Virus가 점액 즉 침이나 콧물 또는 눈물 속에서 살이있기 때문에 그 점액이 마스크에 붙어 입안이나 코안으로 들어 오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예방 주사

- 아무리 빨라도 약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예측한다.
- 바이러스를 조직에 배양하여 많은 양을 확보하고 그 균을 동물에 시험한다음 사람에게도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인체시험에 따르는 위험성 때문에 쉽지 않으며 또 대량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시사만평

미국에 상륙한 코로나바이러스



"걱정 없어."

대럴 케이블 작
케이블 USA
본사 특약